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글로벌 컨테이너선 오더북 두 자릿수로

2020년 4분기에만 25척의 메가 컨테이너선이 발주된 결과,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 대비 오더북 비율이 두 자릿수로 올랐다고 보도됨. 4분기 중 673,500TEU나 발주된 것은 5년만이며, 이 중 591,000TEU가 23,000~24,000TEU급 메가 컨테이너선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VLGC 용선 시장 날개

84,000CBM급 VLGC의 1년간 용선료가 월 160만달러수준으로 1일 용선료 환산 시 52,500달러라고 보도됨. 2020년 11~12월 일일 용선료 3만~4만달러대비 크게 상승했다고 보도됨. 동북아 지역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LPG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 원인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일본의 1,2위 합병 조선사, 경쟁력 발휘 쉽지 않을 듯

일본 1, 2위 조선사인 이마바리조선과 JMU(Japan Marine United)가 설립한 Nihon Shipyard(NSY)가 1월 1일부로 정식 출범했으나 한국,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 조선시장에서 힘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라고 보도됨. 니혼게이지아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자국 언론에서조차 한국, 중국과의 격차가 메워지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삼성중공업, 다목적 해상실증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삼성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이 수행하는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성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보도됨. 이 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국책과제로 정부 주도로 건조할 2만톤급 실증 선박에 삼성중공업이 스마트십 플랫폼 '에스베슬'을 탑재하고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의 친환경 장비 성능 검증 및 고도화와 관련된 연구를 2023년까지 수행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한국항공서비스 새해 첫 수주...제주항공과 항공기 6대 정비 계약

현대로템이 군에서 운용 중인 기동전투체계의 원격·무인 운용 기술을 개발한다고 보도됨. 현대로템은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에서 발주한 기동전투체계 원격 무인화 기술 개발 제1과제와 제2과제를 수주했으며, 총 152억원 규모라고 보도됨. 두 과제 모두 2024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연합뉴스)

한국항공서비스 새해 첫 수주...제주항공과 항공기 6대 정비 계약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가 제주항공과 B737-800 항공기 6대 정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티웨이항공과도 동일 기종의 추가 수주를 협의 중이며, A320 계열 항공기를 다수 보유한 항공사들과도 정비지원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됨. (연합뉴스)